2012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이 17일로 999일 남았다.

지난 2007년 11월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모로코와 폴란드를 제치고 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전남도는 그동안 '전남의 운명을 바꿀 절호의 기회로 삼기 위해' 개최도시인 여수시와 함께 박람회 성공개최 준비에 올인 해왔다.

박람회 유치 이후 1년9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여수시를 비롯한 전남도 일대에서는 800만 명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박람회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규모 도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또 정부차원에서 박람회 개최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박람회지원특별법'이 이미 제정·공포됐으며, 박람회 종합기본계획과 주요사업추진계획이 최근 확정되는 등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100개국 800만명 참가 유치 잰걸음

바다 전시장 조성 공사 이달중 발주

◇100개국 유치 무난할 듯=전남도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해 말 BIE가 여수세계박람회를 공식 승인한 것을 계기로 참가국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00여 개 국이 참가하고 800만 명이 관람하는 것을 목표로 홍보·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유치목표는 50개국이다. 지난 16일 현재 독일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터키, 이집트, 태국 등 20개국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해 왔으며, 국제기구 가운데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PEMSEA(동아시아 해양환경협의회) 등 3개 기구가 참가를 확정했다. 전남도는 참가국 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전시의 질'을 우선하기로 하고 중점유치대상국 50개국을 선정, 이들 국가의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다수 BIE회원국들이 여수박람회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만큼 박람회 참가국 100개국 유치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ECD 등 3개 국제기구 참가 확정
서울~여수 3시간대로 교통 확충
크루즈선 숙박시설 활용 등 검토

◇주요전시시설 조성 착수=전남도와 조직위는 박람회장에 주요 전시시설을 조성·설치할 수 있도록 박람회장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거의 마무리 했으며, 다음달부터는 부지조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람회 전시시설 가운데 주제관과 국가관은 국제 현상공모를 거쳐 조성되며 특히, 한국관은 국내 최초의 '탄소배출 제로 건물'로 건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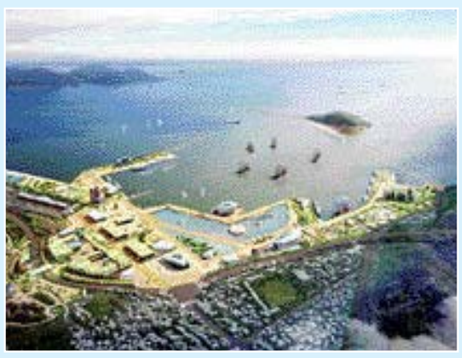
핵심 전시시설로 관심을 끌고 있는 빅오(Big-5)는 턴키(설계·건축 일괄입찰방식) 발주를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며, 이달 말에는 발주가 이뤄질 계획이다. 축구장 12배 크기의 바다전시장 빅오는 박람회장 전시구역 앞 오래된 V자형 제방의 양끝을 연결해 조성되며, 초대형 아쿠아리움(수족관)과 바다 속을 걸을 수 있는 바닷길, 오션타워 등이 들어선다. 또 연안에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를 1/1000로 축소한 '다도해 공원'이 조성되며, 여수시내에는 길이 600m의 디지털갤러리가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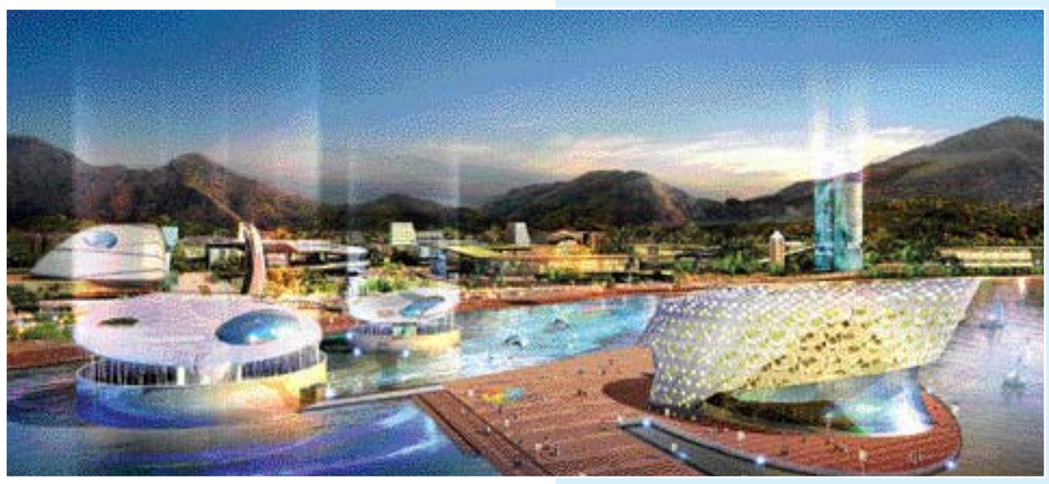
◇교통·숙박체계 구축=전남도와 조직위는 수도권에서 여수까지 3시간대, 부산~여수 2시간대, 목포~여수 1시간30분대로 접근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도로와 철도 시설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광양, 광양~목포 간 고속도로 건설, 익산~여수 간 전라선 복선 전철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 서울~여수 간 KTX 운행 소요시간을 2시간49분대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신설, 해상운송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외 관람객들이 배편으로도 손쉽게 박람회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로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여수~순천 간 국대도 17호선과 여수산단 진입도로를 확충할 계획이며, 여수시내의 경우 주요 접근로별로 4개의 대형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승용차 1만2천대와 버스 7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숙박시설의 경우 일반 숙박시설에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고급숙박시설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시간 거리의 여수, 순천, 광양지역에 고급 호텔과 콘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고급숙박시설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크루즈선을 빌려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종사자 숙소로 사용될 엑스포타운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작업이 진행중이며, 내년 6월 착공될 예정이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전남도는 박람회와 관련된 관광, 숙박, 교통, 도시·환경정비 분야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남해, 하동 등 인접한 지자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있다. 또 다음달 중 광주와 부산, 제주, 경남, 서울 등 남해안권 광역지자제와 함께 '박람회 공동준비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순천만 갯벌과 남해 서상항, 하동 선블루리조트 등을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엑스포 개막 D-999일을 맞아 행사 주요 전시시설 조성·설치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위에서부터 행사 장소인 여수신항· 핵심시설인 'Big-5'의 야경· 수변광장 조감도.

유치 주역 박준영 전남도지사

"인센티브 강화 민자 늘어날 것
전국 단위 '성공 개최' 지원체계"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012여수박람회 유치가 확정됐던 2007년 파리 BIE 총회의 감격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낙후한 운명을 바꾸기 위한' 전남의 노력이 결국 성공했다는 기쁨과 함께, BIE회원국에 '여수에 한 표'를 부탁하기 위해 지구 4바퀴 거리인 13만㎞이상을 이동해야 했던 고된 일정이 마침내 결실을 거뒀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고 했다.

16일 여수박람회 D-1000일을 맞이한 박 지사는 하지만 아직까지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의지, 그리고 열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지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전남이 세계적인 명품 관광·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딤판"이라며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07년 프랑스에서 박람회 유치가 확정됐을 때 심정은.

▲벌써 1년 8개월여가 지났지만, 프랑스 파리 '팔레 드 콩그레' 빌딩 2층 BIE총회장에서 '여수, 꼬레'가 발표되던 순간의 가슴 벅찬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 밤잠 설쳐가며 가슴 졸이던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끝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어려웠던 유치과정에서 기억에 남은 일이 있다면.

▲2007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할 당시 총 비행시간만 44시간 30분이 걸렸는데, 장거리 이동에 따른 몸살과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때문에 방문기간 뿐만 아니라 귀국 후까지도 고생을 했었다. 하지만, 이런 고생스러운 노력도 결국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지금은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 민자유치 등이 부진하다. 대책은 없는지.

▲민자유치사업인 아쿠아리움과 호텔 등 숙박시설은 경기침체로 민간투자 여건이 다소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쿠아리움은 총 사업비의 60%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해지고, 콘도시설은 부지가격이 인하되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있어 민간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은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크루즈선박을 활용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전남도 차원에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박람회 준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박람회장 조성, 교통, 숙박, 관광, 사후활용 등 8대 지원분야에서 90개 단위사업을 발굴해 조직위원회 및 여수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 제주, 경남,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지자체와 지원협정을 체결하고 범도민지원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국내 지원체계를 구축, 자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람회 개최를 통해 전남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는가.

▲박람회 개최 이후 전남지역의 발전과 도약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은 박람회 개최지로서의 지명도와 축적된 해양기술을 발판으로 국제적인 해양관광레저와 해양산업의 거점·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다.

서부권 역시 동부권의 파급효과에 힘입어 서남해안 일대가 해양관광의 명소로 거듭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와 F1국제자동차대회 등 세계적인 행사를 발판삼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고,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매력있는 투자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